



「2020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참가자 2차 모집 공고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비정규직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실질적 여가 활동 증진 및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국내여행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2020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일부 기준을 조정한 2차 모집내용을 공고하오니, 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6월 1일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비정규직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여가 활동 증진 및 국내관광 활성화

나. 주요내용: 노동자와 서울시가 함께 국내여행상품 온라인몰의 적립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용해 여가 상품 구매 및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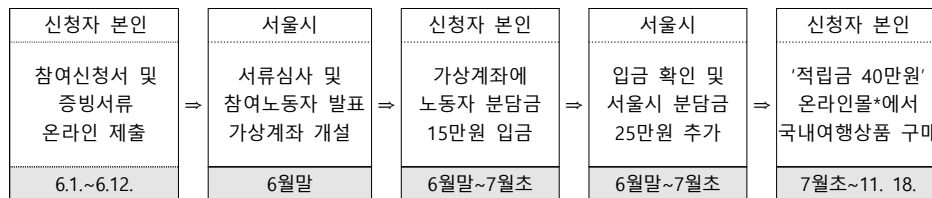
※ 총 지원규모: 3,800명 (※3,800명= 2020년도 1차+2차 최종 선정자 합계)

※ 적립금 조성: 총 적립금 40만원 = 참여 노동자 15만원 + 서울시 25만원

※ 적립금 사용: (사용처)사업 전용 온라인몰(www.seoulvacation.kr)

(사용기한)2020년 7월초 ~ 2020년 11월 18일까지 ※ 2차 선정자 대상 적용

다. 참여절차



*사업 전용 온라인몰로, 국내여행상품(여행패키지, 숙박, 체험/입장권, 캠핑 등)으로 구성

- 세부내용 홈페이지 www.seoulvacation.kr 참조

2. 신청대상

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노동자로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 1) 공고일(2020.6.1.) 현재 주민등록상 현주소가 서울시인 만 19세 이상 노동자
- 2) 공고일(2020.6.1.) 현재 고용형태가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플랫폼노동 종사자 포함)인 노동자 (※세부내용 불임문서 참고)
- 3) 소득증빙서류상 총 연소득금액이 3,360만원 미만(월평균 280만원 미만)인 노동자

나. 자격조건 증빙서류 목록

1. 거주지 및 연령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모집공고일(2020.6.1.) 이후 발급된 문서로 서울 거주 및 생년월일 정보가 식별 가능한 서류에 한함
2. 고용형태	2-1. 비정규직 노동자	1. 현재 재직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직증명서 등 재직증임을 확인하는 문서는 모집공고일(2020.6.1.) 이후 발급된 문서에 한함 (택 1) ①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류) ②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에 인사담당자의 '비정규직 확인' 수기 확인 및 날인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구분 명시 필수) + 근로계약서(계약기간 명시된 서류) ·재직증명서 대체 가능 서류: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일용근로내역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입증불가 서류: 정규직, 무기계약직,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계약만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서
	2-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위탁/도급/용역계약서 또는 사실확인증명서 등 (택 1) ① 계약기간이 모집공고일(2020.6.1.)을 포함하는 계약서 ② 모집공고일(2020.6.1.) 현재 재직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6개월 내 근로 내역 ·증빙서류 예시: 업무위탁계약서, 도급계약서, 용역계약서, 위촉계약서, 위수탁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확인증명서, 강의를정서, 강사위촉결과통지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3. 플랫폼노동 종사자	업무위탁계약서 또는 근로 내역 증빙 자료 등 (택 1) ① 계약기간이 모집공고일(2020.6.1.)을 포함하는 계약서 ② 모집공고일(2020.6.1.) 기준 재직중이며, 6개월 내 근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4. 기타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등 -코로나19로 인한 계약연기, 휴강 등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모집공고일(2020.6.1.)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코로나19 발생 전 기존 계약 기간이 모집공고일을 포함해야 하며 코로나로 인해 용역 제공을 못했다는 내용 필요

3. 소득증빙	3-1. 근로소득자 (매월 급여를 받는 봉급생활자, 일용노동자)	2018년도 또는 2019년도 소득금액증명 -모집공고일(2020.6.1.)이후 발급된 소득금액 증명서 ※ 국세청(홈택스) 발급
	3-2. 사업소득자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등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한 노동자)	·입증불가 서류: 소득확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장에서 발급된 문서 등
	3-3.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	2018년도 소득금액증명 -모집공고일(2020.6.1.)이후 발급된 소득금액 증명서 ※국세청(홈택스) 발급
	3-4. 소득이 없는 자 (종합소득세 신고사실,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한 사실 등이 없는 자)	2018년도 사실증명원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신청) ※2차 신청 접수 기간(2020.6.1.~6.12.) 중 전년도(2019년) 사실증명원 발급 불가(6월말 이후 발급 가능)

- ※ 모든 증명서류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뒤 여섯 자리를 안보이게** 처리하여 제출
 ※ 초본, 계약서 등 제출하는 증명서류가 2장 이상일 경우 반드시 모든 서류를 제출(1페이지만 제출 시 인정 불가)
 ※ 모든 증명서류는 반드시 발급처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열람용, 화면 촬영본 제출 불가)

3. 신청방법

- 가. 신청기간: 2020년 6월 1일(월) 10시 ~ 6월 12일(금) 17시, 총 12일간
 나. 신청방법: 노동자 개인 단위 온라인 신청
 다. 신청서 제출: 웹사이트(www.seoulvacation.kr)에서 온라인 서식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
 ※ 현장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 불가
 ※ 모바일 웹사이트 신청 불가
 라. 신청문의
 1) 전화: 120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또는 시외·휴대전화 02-120), 서울관광재단 02-3788-8156
 이메일: vacation@sto.or.kr
 2) 서울형 여행마우처 사업 홈페이지(www.seoulvacation.kr) > ‘자주하는 질문’ 참조

4. 선정방법

- 가. 2020년 서울형 여행마우처 지원 사업의 선정인원은 총 3,800명
 나. 전체 신청 인원(1·2차 합계)이 모집 정원(3,800명)에 미달된 경우,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추가모집을 진행
 다. 전체 신청 인원(1·2차 합계)이 모집 정원(3,800명)을 초과한 경우 또는 참여 중지 및 참여노동자의 중도 포기에 의한 결원 발생 시 추가 선정은 저소득 신청자를 우선순위로 선발

5. 참고사항

- 가. 온라인 신청서에 기입한 내용과 첨부한 증명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나. 참여자 선정 후 1주 이내에 개별 가상계좌에 노동자 분담금(15만원) 입금을 완료한 노동자에 한하여 서울시 분담금을 지원함
 다. 여행저렴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www.seoulvacation.kr)
 라. 세부 일정, 내용, 증명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www.seoulvacation.kr) 참고

붙임 사업 참여 대상 노동자의 고용형태별 정의

1) '비정규직 노동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로, 해당 고용형태의 증명을 위해 재단이 규정한 서류의 제출이 가능한 자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플랫폼노동 종사자'

해당 고용형태의 증명을 위해 재단이 규정한 서류의 제출이 가능한 자

<표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플랫폼노동 종사자 직종 예시

레미콘 기사	대리운전	채권추심원	간병인
건설기계 종사자	검침원	자동차판매원	스포츠강사
화물자동차 운송	AS기사	신문광고 영업사원	헤어디자이너
구난차(견인차) 기사	가정 렌탈기기 점검원	상조회사 영업사원	학원강사
학원버스 기사	배달, 심부름기사	의류판매 중간관리자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마필관리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골프경기 보조원	IT프로그래머
택배기사	카드모집인	관광가이드	객공
음식배달기사	야쿠르트 및 화장품 등 방문판매자	행사도우미	애니메이터
출판교정인	영화스텝	연극인	플랫폼노동 종사자 (배달앱 라이더, 웹툰작가 등)

※출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산재보험 적용확대 및 보험료 부과방안에 대한 연구」 중 '특수근로형태 종사자에 대한 구분' 표,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2017.12.) 등